

2024 삼척시의회 국외 의정연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4. 10.

삼척시의회

목 차

I. 출장 개요	01
II. 출장 일정	02
III. 출장 국가 현황	03
IV. 주요 출장 내역	05
1. 암스테르담 드 꺼블	05
2. 로테르담 큐브하우스	08
3. 로테르담 마켓홀	09
4. 암스테르담 드 할렌	10
5. 에센 즐페라인	11
6. 하이델베르그 반슈타트	15
7. 프랑크푸르트 유기동물보호소	18
V. 출장자 소감	21

1 출장 개요

1. 방문국가: 독일, 네덜란드

2. 출장목적

- 도시재생, 에너지산업, 공공 복합문화시설 등 시(市) 역점 추진사업의 발전 방안을 위한 벤치마킹
- 지역 특화산업 견학을 통한 접목 방안 연구
-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개발 정책 발굴

3. 출장기간 : 2024. 9. 19.(목) ~ 9. 26.(목) [6박 8일]

4. 보고서 작성자 : 삼척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일동

5. 출장자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성별	성 명	비 고
계			13명	
삼척시의회	의장	남	권정복	
	부의장	남	김원학	
	의원	여	정정순	
	의원	남	이광우	
	의원	남	양희전	
	의원	남	김희창	
	의원	남	정연철	
	의원	남	김재구	
의회사무과	행정5급	남	남진배	
	행정6급	여	임미선	
	행정6급	남	최승유	
	행정7급	남	전진표	
	지방임기제(시간제 다급)	남	김주상	

2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출장일정
9.19(목)	대한민국	네덜란드	[출국]
9.20(금)	네덜란드		[공식방문] - 드 꺼블(폐조선소 활용사례) [현장시찰] - 잔세스칸스
9.21(토)	네덜란드		[현장시찰] - 큐브하우스 - 마켓홀
9.22(일)	네덜란드	독일	[현장시찰] - 드 할렌(복합문화공간) [뒤스부르크 이동]
9.23(월)	독일		[공식방문] - 졸페라인(폐광 재생사례) [프랑크푸르트 이동]
9.24(화)	독일		[공식방문] - 반슈타트(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현장시찰] - 하이델베르크 시가지
9.25(수)	독일		[공식방문] - 유기동물보호소 [공항 이동]
9.26(목)	독일	대한민국	[입국]

3

출장 국가 현황

◎ 네덜란드 (방문기간: 2024. 9. 19 ~ 9. 22.)

국가명	네덜란드(Netherlands)		
수도명	암스테르담		
방문지역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음 (서머타임 적용 시 7시간 느림)		
면적	415만 4천ha / 세계 133위		
인구	1,822만 8,742명 / 세계 71위	위도	북위 52.15°
종교	가톨릭(18.2%), 네덜란드 개신교(13.2%) 이슬람(5.6%), 기타(5.9%), 무종교(57.2%)	경도	동경 5.3°
주요언어	네덜란드어	GDP	8,957억 6,577만 달러 (세계 18위)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헌법: 1813년 제정 · 의회: 양원제(상원: 75명, 임기 4년 / 하원: 150명, 임기 4년) · 주요정당: 자유민주당, 신사회계약당, 노동당, 녹색당, 자유당, 농민시민당, D66당,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연합, 사회당 		
			

◎ 독일 (방문기간: 2024. 9. 22 ~ 9. 25)

국가명	독일(Germany)		
수도명	베를린		
방문지역	에센, 하이델베르그, 프랑크푸르트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음 (서머타임 적용 시 7시간 느림)		
면적	3,575만 9천ha / 세계 63위		
인구	8,455만 2,242명 / 세계 19위	위도	북위 51°
종교	개신교 30.8%, 구교 31.5%, 이슬람교 4%	경도	동경 10°
주요언어	독일어	GDP	3조 6,224억 9,923만 달러 (세계 4위)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체제: 연방공화제(16개 연방주로 구성)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총리: 앙겔라 메르켈) · 의회: 양원제(연방하원: 630석 / 연방상원: 69석) 		
			

1. 암스테르담 드 꺼블(de ceuvel)

◎ 방문지역 소개

- 유럽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혁신적인 도시전환 프로젝트로 꼽히는 드 꺼블은 폐쇄된 조선소의 유희지에 조성된 사회혁신 공동체이자 거대한 실험실로 불린다. 암스테르담의 지원과 보증으로 사회혁신가들을 불러 모아 2014년 환경오염으로 폐허가 된 조선소 부지(약 380평)의 자원과 에너지를 버려지지 않는 공간으로 재설계하였다.
- 배(boat)라고 불리는 공간은 미술 등 작업공간으로 쓰이는데, 태양광 패널, 이중창, 히트펌프 등 자연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를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 오염된 토양은 식물을 이용해 정화하고, 화장실은 물을 쓰지 않고 마른 퇴비를 활용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 연료로 재생산된다. 2017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지속가능한 화요일상'을 수상하였다.

◎ 방문목적

- 도시전환 프로젝트의 성공 노하우를 학습하고, 지역 유희지의 활용·개발에 대한 접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프로젝트 추진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 협력 방식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질의 및 답변

질문 1. 하우스 보트를 어떤 전략으로 설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어야 하므로, 적절한 부유성을 확보하고자 경량 소재와 부력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였습니다.

질문 2. 보트에 하수구가 없는데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답변 2. 각 보트마다 박스가 있는데 습지 식물 필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을 정화하는 자연식 필터입니다. 여기로 폐수가 들어가면 음용이 가능한 수준의 깨끗한 물로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 3. 태양광 패널을 왜 나무 앞에 설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나무나 식물들이 태양광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여 패널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을 막아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4. 물 위에 집을 짓는 독특한 건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4. 네덜란드는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으며, 많은 운하와 호수로 인해 땅의 가용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상가옥은 네덜란드 미래 개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 5.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또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는지?

답변 5.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음악, 춤, 시 낭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도모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드 꺼블은 오염된 산업 부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혁신적인 사례로, 에너지 효율성을 지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토지 이용에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접목 가능성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 또한 드 꺼블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커뮤니티 형성과 대중 참여를 강조한다. 나아가 다양한 행사와 워크숍, 교육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립적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 시의 다양한 지역역량강화 사업 역시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로테르담 큐브하우스

◎ 방문지역 소개

- 로테르담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가 피에트 블룸이 “도시 지붕으로 살기” 개념에 기초해 지은 혁신적인 건축물로, 총 38채의 아파트가 있다. 일반적인 직각 구조가 아닌 기울어진 큐브 형태로 설계되어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이다. 벽과 창문은 54.7도로 기울어져 있고, 각 아파트마다 3층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 방문목적

- 현대 건축의 창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쇼 큐브하우스 내부에 직접 들어가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큐브하우스는 창의적인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한다. 낙후된 지역을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켜 관광지로 변모시킨 사례로, 창의적 건축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비록 독특한 외관 때문에 공간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창의적인 설계와 실용성의 균형을 함께 추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로테르담 마켓홀(Markthal)

◎ 방문지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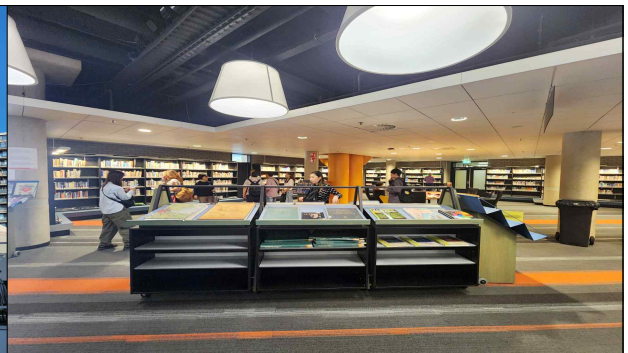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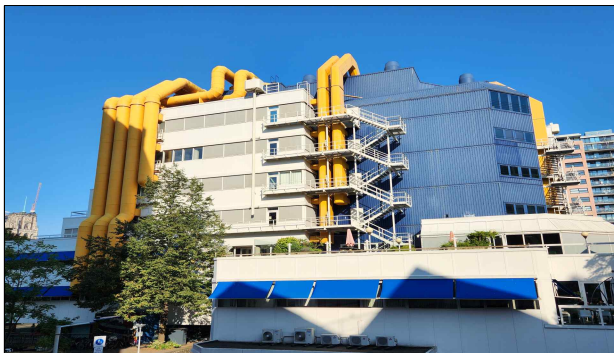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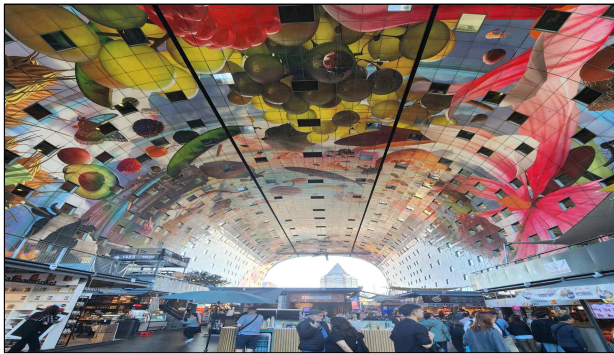
- 실내형 전통시장과 아파트를 결합한 역 U자 모양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로테르담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었다. 96개의 상점, 8개의 레스토랑, 228가구의 아파트로, 하루 평균 2만 4,000 여명이 이곳을 찾는다.

◎ 방문목적

-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주상복합건물을 시찰하고, 주민과 상인 간 상생 협력 체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마켓홀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주거, 상업, 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함께 활성화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 마켓홀 주변 로테르담 중앙도서관에는 시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서와 가구 등을 배치하였다. 체스를 둘 수 있는 휴식공간 또한 마련되어 여유와 문화를 제공한다.



4. 암스테르담 드 할렌(de Hallen)

◎ 방문지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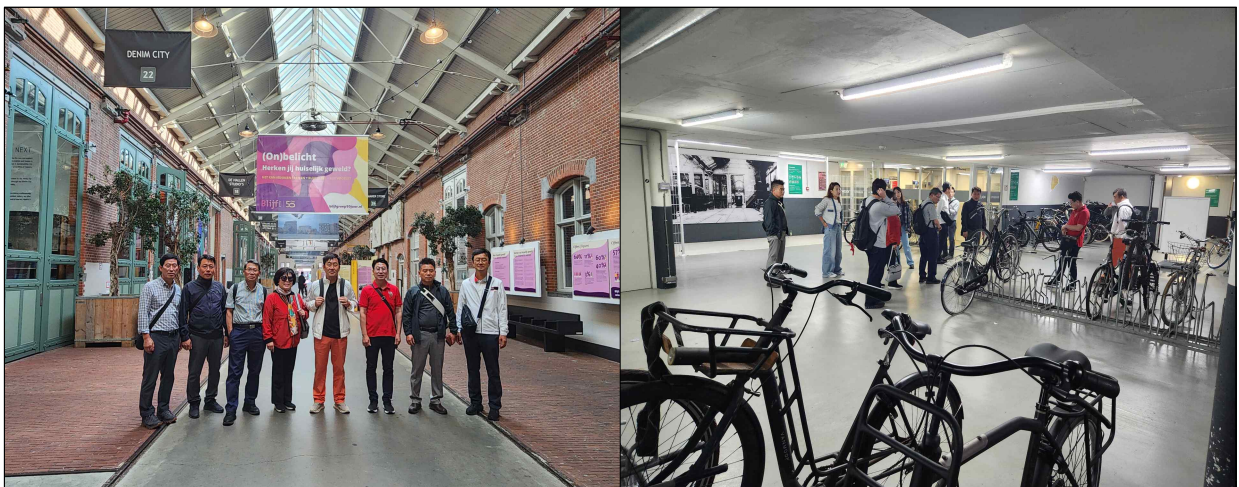
- 트램 정비소로 사용되던 산업 건물을 개조해 예술전시, 영화상영,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지역 예술가들이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 방문목적

- 폐기된 공간을 현대적 방식으로 활용한 사례로, 창의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알아보고자 한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드 할렌은 지역 예술가와 창작자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도시재생, 문화적 발전,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 드 할렌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생활 속 여유를 제공하고, 지하에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5. 에센 졸페라인(Zollverein)

◎ 방문지역 소개

- 이곳은 한때 독일의 산업화, 공업화로 상징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지역으로 연간 석탄 생산량이 7,300만 톤에 달했으나, 석탄산업의 몰락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루르 지역 17개 폐광도시는 주정부와 공동으로 IBA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건축물의 용도전환을 통해 이 지역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세계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광산의 굴뚝이 보이는 보일러하우스를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으로 부활시키며 변신이 시작되었다. 내부에는 산업화 시대의 역사적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채탄 흔적을 보존한 카페, 기념품 판매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입구에는 랜드마크처럼 거대한 권양기탑이 있는데, 이는 갱도에서 채굴한 석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던 시설물로, 지금은 현재와 과거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창의적 발상과 건축가들의 열정으로 완성된 졸페라인은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이다.

◎ 방문목적

- 우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던 폐광지역의 극복 방안을 알아보고, 폐광 대체산업 추진 및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함.
- 갱내수 처리 등 폐광 이후의 광산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광해 복구사업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질의 및 답변

질문 1. 독일 탄광의 산업화는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습니까?

답변 1. 19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화와 대규모 생산이 필요해졌고,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독일은 풍부한 석탄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2. 탄광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2. 2002년, 독일의 탄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탄광 문화유산은 단순히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의 변화와 노동자의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질문 3. 아직 탄광이 남아있는지? 그 소유는 누구인지?

답변 3. 아직 2개의 탄광이 남아있고, 지금은 시 소유입니다. 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보조를 통해 탄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광산에서 물을 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4. 광산 내부의 물이 차오르면 홍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뽑아낸 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질문 5. 독일 석탄산업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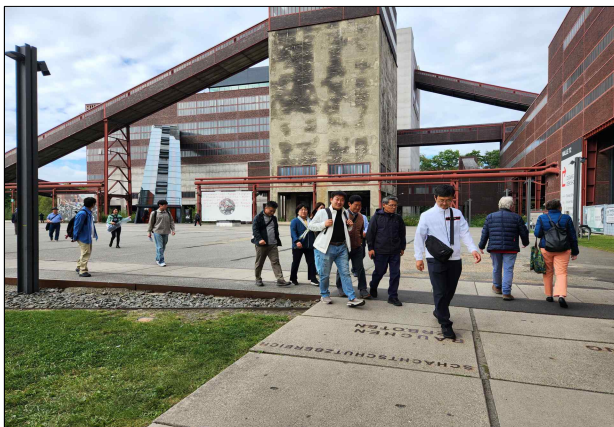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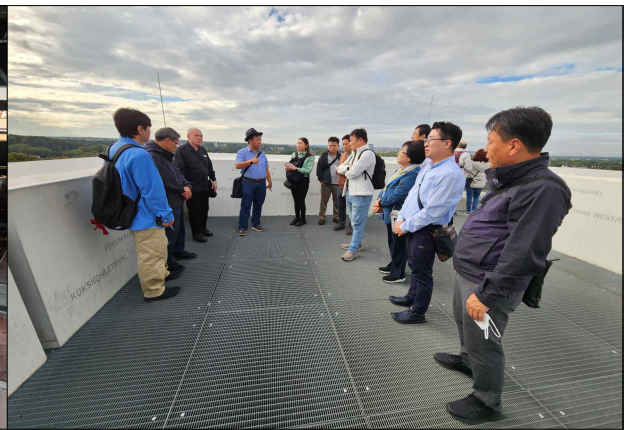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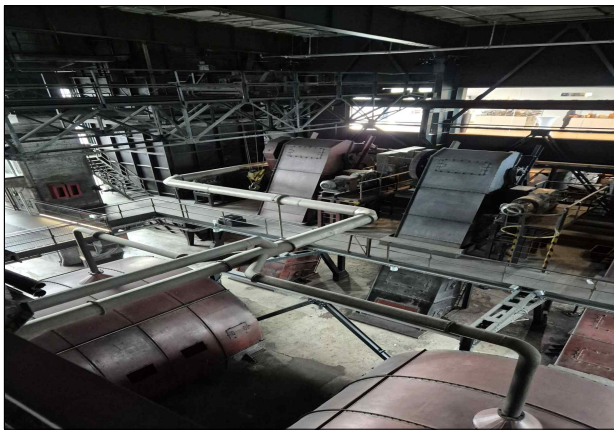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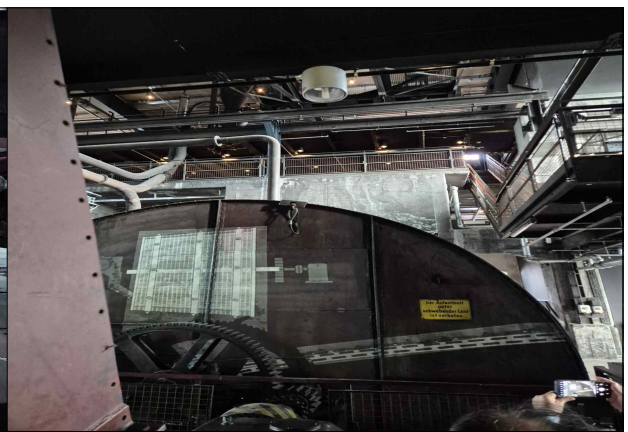
답변 5. 아직 석탄은 일부 산업과 민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2038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질문 6. 폐광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6. 갯내수를 일정 수위로 유지하기 위해 펌핑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상으로 배출하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정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갯내수와 지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 중입니다.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는 제거하거나 격리 후 정화하여 방출하였습니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줄페라인은 기존의 산업 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 창출을 해냄으로써 신구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박물관과 극장, 디자인스쿨, 콩그레스센터 등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기존의 부대시설과 물류 동선 등은 방문객들의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 회색 일색의 지역에 디자인 전문가들을 동원해, 다양하고 밝은 색을 더해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특히 스타 디자이너를 기용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의 예술가들을 뭉치게 했다. 지역 예술가들을 통해 완성된 루르박물관은 민관협동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 전체적인 운영 방식 외에도 작은 부분까지 세심함이 돋보인다. 줄페라인의 전경을 담은 모형도는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활용하였고, 코크스가공공장의 냉각수를 위한 1km 길이의 물줄기는 아이스링크로 만들어 활용한다. 설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해 채탄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인상적이다.



6.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Bahnstadt)

◎ 방문지역 소개

- 반슈타트는 버려진 철도 및 화물역사를 중심으로 시의회의 주도로 개발된 일자리 개발형 도시로, 총 6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빗물 저장 활용, 옥상녹화, 특수단열재 및 이중구조 창문, 하이테크 여과 시스템 및 공기순환장치 등 친환경 요소를 적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일반 건축물보다 90% 이상 절감하고 있다.
- 주거, 교육, 사무, 상업, 산업, 과학,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진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로 탄소 배출 저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 방문목적

-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델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자원 순환 전략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과 환경친화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질의 및 답변

질문 1. 하이델베르크가 현재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1. 1386년에 설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로,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생명과학, 화학 분야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2.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답변 2. 하이델베르크는 미군이 점령한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오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이 살 수 있을지 평가를 해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목표로 반슈타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땅을 사고 13년 뒤에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10년 동안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한 후 시작합니다.

질문 3. 스마트시티는 어떤 특징으로 개발이 되었는지요?

답변 3. 우선적으로 고층 건물은 짓지 않았으며, 연구소만 조성하면 퇴근 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중앙역 근처부터 차례로 상업지역, 그다음은 연구 시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질문 4. 패시브 하우스는 어떤 건축물입니까?

답변 4. 패시브 하우스는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하우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 냉·난방 시설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고도의 단열, 기밀성, 열 회수 환기 시스템 등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패시브 하우스는 준공 시 3회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문 5.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 기상이 지속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5. 냉장고 회사와 연계해 시원한 바람을 개별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도시 만하임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저장해 개별 주택에 다시 분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의회의 주도로 시작된 반슈타트는, 10년 이상의 치밀한 자료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전문가, 개발사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거버넌스를 실현한 점이 우수했다.
- 통제가 가능한 차양시설은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심을 가로지르는 개천은 도심의 열섬 현상을 해결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구역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가로등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였고, 보도블록 또한 퍼즐 형태로 연결되어 유격을 방지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된 도시개발이야말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7. 프랑크푸르트 유기동물보호소

◎ 방문지역 소개

- 프랑크푸르트 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시설로 개, 고양이, 새, 토끼, 거북 등 다양한 동물들이 체류 기간에 제한 없이 보호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물 복지 법령에 따라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린 동물이 아닌 이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또한,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동물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 방문목적

- 시설 운영 방식, 동물 입양 절차, 자원봉사 관리, 재정 관리 등 우리 시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 안락사 문제 등 동물 복지정책과 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질의 및 답변

질문 1.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답변 1. 주로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및 입양을 담당합니다.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 이벤트를 개최하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희망자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주거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여 분양이 이루어 집니다.

질문 2. 여기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지요?

답변 2. 원칙적으로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에 걸린 경우나 과도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동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시설 규모가 꽤 큰데, 유기 사례가 증가한 탓인지? 입양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3. 시설에 보호되는 유기동물 대부분은 버려지는 경우보다 주인이 직접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그 수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독일 내 보호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용 여력이 부족한 경우 서로 나눠서 돌보고 있습니다.

질문 4.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답변 4. 고양이와 같은 작은 동물은 없고 개는 1년에 90EUR(13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나귀, 노새 등과 같이 더 큰 동물을 키우는 경우 13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질문 5. 우리나라의 경우 펫숍을 통해 동물이 거래되고,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떠한지요?

답변 5. 이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상업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6.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필수 절차인가요?

답변 6. 현재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전부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7. 유기동물보호소의 지원 정책과 운영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7. 이곳 부지는 시에서 장기 임대를 해준 사유지이며, 건물은 저희 협회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년에 250만EUR(약37억원)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개를 분양할 시 마리당 200~300EUR 정도를 책임비로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입양 절차가 매우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재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입양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 독일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및 후원, 재능기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운영 방안을 참고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출장자 소감**

- ◎ 이번 출장은 우리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도시재생, 폐광 대체산업, 관광, 복지 등 두 나라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심도 있게 알 수 있었으며, 우리 시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다.

- ◎ 네덜란드는 관용과 자유의 나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

- ◎ 독일은 경제적 안정과 복지 제도가 깊이 자리 잡은 사회로, 모든 정책에 있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시민의 자립과 존엄을 중시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 두 나라 모두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경관과 지역 특색을 살려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 동일했다.

- ◎ 네덜란드는 인구수보다 자전거 대수가 많다는 말처럼, 자전거 이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곳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시설, 신호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있어 자전거는 그들의 일상과도 같았다. 우리 시 또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 환경 보호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두 나라의 공공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처음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느꼈다. 우리 시도 공공화장실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 ◎ 로테르담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의미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재정의하였다고 생각한다. 기존 건축물의 외부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상징성을 더했으며, 내부는 섹션별로 구분되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여가와 문화를 즐기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낮고 개방적인 책장과 곳곳에 배치된 유선형의 의자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더했다. 또한 놀이와 독서를 병행할 수 있는 아이들 공간과 대형 체스판 등은 다양한 세대의 흥미를 충족하고 도서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도 딱딱하고 조용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고, 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이 탄생하였으면 한다.

- ◎ 네덜란드의 드 거블과 드 할렌과 같은 도시재생 사례는 자원의 재활용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철학을 잘 보여주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재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민관 협치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 ◎ 네덜란드는 자연경관과 도시 디자인을 결합하여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독일은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시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줄페라인은 우리 도계지역에서 기초 훈련을 받은 파독 광부들이 이곳에서 일했다는 점에서 그 재생 과정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지금은 폐광 당시 사라졌던 일자리 그 이상이 확보되었고, 회색빛 가득하던 지역은 활력이 넘치는 밝은 도시로 부활했다. 세계문화유산이자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줄페라인의 성공 비결은 산업 유산의 보존 및 현대적 활용안,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창조적 접근, 그리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계지역의 경제적 전환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